

금산분리 철폐·대운하 '급물살'

■ 4·9 총선 한나라당 완승... 'MB노믹스' 탄력 받나

법인세 인하·출총제 폐지 등 기업투자 활기

부동산 보유세 등 대대적 규제 완화도 추진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완승을 거두면서 이른바 'MB노믹스'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선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금산분리 철폐 등 실용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선정국과 맞물려 물가안정 등 세부 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선거 마무리와 함께 이제 '진짜 MB노믹스'를 선보일 기회가 왔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반응이다.

제한제도(이하 출총제) 폐지,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촉진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200%로 묶여 있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없애고, 지주회사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들 정책은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올 6월 말에 시행시기가 대거 몰려있다. 여당의 지원을 받아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한 후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오는 6월 임시

국회 개최시기와 맞물려 쏟아진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네트워크론 결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투자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과 하도급법을 고쳐 현행 원자재가격·납품단가제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했다. 원자재 가격 납품가 연동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부처 내부의 조율과정이 남아 있다.

외국인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 규제 완화, 의료 서비스 경쟁력 촉진 등 서비스업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은 외국 교육기관특별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올 10~12월 중 추진한다.

반면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은 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안 때문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개선방안은 총선 이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못 박았다.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거전에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등 88개 공기업을 민영화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정부는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와 금산분리 폐지 등에 대한 사전정치자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인다.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인 이유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중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2013년 20%까지 내리고, 최저 세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0%로 인하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융규제 완화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대대적 규제 완화를 시작한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개도국 무역수지 올들어 적자전환 2월중 4억달러 적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420억3천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늘어났고 수입은 424억3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개도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3억9천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개도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6년 269억8천500만 달러, 지난해 388억400만 달러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고 지난해 1~2월에도 48억6천100만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실제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동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2월 63억200만 달러에서 올해 1~2월 117억3천400만 달러로 확대됐고 중남미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2월 21억8천200만 달러에서 올해는 19억3천400만 달러로 축소됐다.

한국 IT 경쟁력 큰 진전

NRI 19위→9위로 '깜짝'... 첫 '톱10' 진입

우리나라가 각국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인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 처음으로 '톱 10'에 진입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를 통한 혁신 강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올해 우리나라의 NRI 지수는 127개 국가·경제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2006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122개 국가·경제 중 19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1년만에 무려 10계단을 뛰어 올라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진전을 보인 나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WEF가 국제적인 MBA스쿨인 인세이드(INSEAD)와 공동으로 개인과 정부·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측정치이다.

WE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장 인상적인 진전을 이룩한 나라"라면서 "질 높은 고등교육과 양질의 노동력 공급, 뛰어난 연구기관 등에서의 비교우위가 매우 역동적이고 세련된 비즈니스 부문과 결합함으로써 놀랄 만한 수준의 혁신이 이뤄지고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기업들이 출현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3월 생산자 물가 8% ↑

원자재값 상승 여파 10년만에 최고치

공산품·서비스 가격 등 큰 폭 오름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지난해 생산자물가가 1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3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 상승해 1998년 11월 11.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9일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1.7%, 9월 2.1%, 10월 3.4%, 11월 4.4%, 12월 5.1%, 올해 1월 5.9%, 2월 6.8% 등으로 오름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7%

를 나타내 1998년 2월 2.4% 이후로 가장 높았다.

생산자물가가 급등한 것은 농림수산물 가격이 축산물과 수산물물을 중심으로 오르고,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등 대부분 품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 가격의 경우 쇠고기 값이 전월 대비 4.1% 내렸으나 돼지고기 값이 14.8%나 뛰었고 계란(6.3%), 닭고기(0.4%)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1.9% 상승했다.

공산품의 경우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상승하면서 음식료품 및 담배,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 1차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3% 올랐다. 특히 음식료품 가운데는 비스킷(24.7%), 스낵과자(8.7%), 라면(3.6%) 등 가공식품과 배합사료(2.1%)의 오름 폭이 컸다.



'Trade Korea' 개통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글로벌 e-마켓을 레이스 'TradeKorea' 개통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돈 쌓아놓고 투자는 안한다

작년 상장법인 막대한 이익 불구 유보율 700%

삼성 1,488% 가장 높아... 대부분 투자시기 조율

상장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면서도 투자에는 인색한 탓에 유보율이 높아져 7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 가운데 전년과 실적비교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546개 제조업체의 작년 말 현재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유보율은 675.57%에 달했다. 이는 2006년 말 610.80%에 비해 64.7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유보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부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다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작년 말 현재 조사대상 업체의 잉여금은 358조1천50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75% 늘어난 반면 자본금은 53조147억원으로 1.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돈 많이 벌면서도 투자를 의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2006년 말 694.67%에서 작년 말 787.93%로 상승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에 비해서 112.36%포인트나 높았다.

그룹별로 보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유보율이 1천488.97%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1천398.92%), SK(1천378.26%), 롯데(1천194.98%), 한진(824.99%) 순이었다. 다만 현대차(607.39%)와 GS(574.03%), LG(478.08%), 한화(268.54%), 금호아시아나(128.88%) 등은 유보율이 조사대상 기

업을 평균치를 밑돌았다.

기업별로 보면 SK텔레콤(2만6천535%), 태광산업(2만6천64%), 롯데제과(1만9천10%), 롯데칠성음료(1만5천400%), 남양유업(1만4천185%), 영풍(7천817%), 삼성전자(6천387%), BYC(5천595%), 롯데쇼핑(5천467%), 고려제강(5천394%) 순으로 유보율이 높았다.

김성주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작년에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미국의 경기도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힘들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투자시기를 조율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올해도 대외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나 미국 경기가 3·4분기에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고 새 정부의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스텝스*	세탁기 개발부서 품질관리(OA)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0	062-351-6052
㈜엘엠아트	인테리어설계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234-0066
리빙프리자*	상성디지털프린터 매장내 전자제품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375-8407
호비pc프리카*	LG퍼ipherals 영업팀 및 고객관리팀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1	062-444-2233
동부화재 광주 고객센터팀	[광주]TM센터 Open)본사직영 TMA사원(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1	062-220-8500
시흥금속	사무일부관리, 현장관리 보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2	062-956-0223
㈜다해전력	태양광발전주력 현장시공 전기공사 시공 보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2	062-572-0622
㈜월드넷	KT 홍보 및 영업사원, 경리이비비트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2	010-7336-8282
㈜씨티엘	[광주] 정비사 (전기,전자,기계 전공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31-205-5300
㈜에이치디스틸	광주지역 철강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4/13	02-2026-8384
㈜대창 E&T	SK텔레콤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4	062-383-6831
남해종합개발	[건축/기계/전기/사무관리팀]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20-2514
㈜H&T	SK텔레콤 정규직/주5일 1142버넌드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4/15	062-350-6333
㈜DAC	전남 광주지역 영업관리 대졸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31-467-6521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집결지 512-6210 제공)

상속세 40% 인하땐 GDP 0.06% 상승

전경련 보고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에서 상속세를 40%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6%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조경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공공경제 제12권 제2호에 실린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2004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세대(20세)가 80세까지 생존하는 동안의 상속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밝혔다.

보고서는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시기는 31세에서 45세 사이로 가정했고, 경제주체는 미래의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모형을 구축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체계상 공제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 가액이 5억원이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을 가진 계층을 '상속세계층'으로, 5억 미만은 '무상속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결과 상속세가 40% 인하되면 상속세계층의 상속액은 6.2~6.5% 증가해 자본소득은 생애 평균 8.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소득과 투자가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고 이는 GDP의 증가로 이어져 상속세를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GDP는 연평균 0.06% 내외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시중유동성 '고공행진'

2월중 13.4%... 5년만에 최고치

예·적금, 기업·가계대출 증가 탓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동향'에 따르면 각종 통화·유동성 지표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미만의 정기에·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광잔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월 12.5%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03년 1월(13.9%)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 이상의 정기에·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율도 전월 11.4%에서 11.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중유동성이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기업 및 가계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년 미만의 정기에·적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쇼핑 판매액 백화점 추월"

삼성경제연구원... "올 인터넷 판매 20조 돌파"

올해 인터넷 쇼핑시장을 통한 판매액이 20조원을 돌파해 백화점 판매액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인터넷 쇼핑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인터넷 쇼핑판매액은 현재의 성장세로 볼 때 20조원을 돌파해 백화점의 판매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쇼핑시장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9.5% 증가해 2006년에는 슈퍼마켓을 제치고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어 3대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전체 소매유통에서 인터넷 쇼핑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기준 7.4%로 미국의 2.8%(2006년), 일본의 2.9%(2006년)를 크게 상회했다.

/연합뉴스